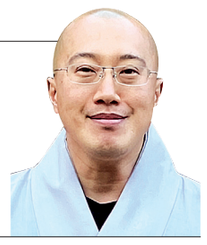
현불 논단

# 우리는 오늘을 산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코로나19 유행 등 부정적 변화 증가**
**해답 못 찾고 막연한 환상 속에 살아**
**주식투자, 코인, NFT 등이 이를 방증**

**'수처작주 입처개진' 임제록의 가르침**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라는 교훈**
**부처님 가르침, '오늘을 살라'고 강조**
**행복은 어제, 내일 아닌 현재에 있다**

코로나19 사태, 러 ·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 열거한 것만 봐도 그 변화는 결코 좋지 못한 것이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현실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점차 내일의 무언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렸던 주식투자와 코인, NFT 등이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현재 자신의 자리를 넘어선 피안의 행복을 바라며 생겨난 현상이다. 다시 말해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상적인 것을 찾아 떠난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투자열기가 그 열기만큼 뜨거운 결과를 가져왔다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대부분이 더 큰 어려움과 상처가 되어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투자와 투기가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한 실정이라 어떠한 위로나 이야기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정도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의 주인이 되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참되다'는 〈임제록〉의 유명한 구절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값진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거나, 미디어에 나오는 허황된 모습에 빠져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꿈에 빠져 살아간다. 우리가 우리로써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서있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명확히 알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며, 정작 자신이 무지개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무지개 너머의 환상만을 쫓게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는 〈금강경〉의 구절로, 어떠한 집착도 가지지 말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이다. 이는 지금 무언가 하고 있고 하려는 것에 대해 먼저 결과를 두고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망하거나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경책하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그러다보면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또한 지금의 형편을 탓하며 무리한 투자로 허망한 결과만을 쫓게 된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좋다고 하여 그것만을 유지하려 하거나 그만큼의 결과를 항상 바란다면 지금을 살면서도 과거만을 회상하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즉시(圓覺道場何處 現今生死卽是)', 해인사 법보전의 주련으로, '중생들이 그토록 찾아 해매는 깨달음이라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법보전에 이러한 주련이 있다는 것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사회와 경제가 지나칠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 걸음은 우리와 사회를 내일로 이끌고 가는 큰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은 지나간 어제에 있는 것도 다가올 내일에 있는 것도 아닌 바로 한 걸음 내딛은 오늘에 있음을 여실히 알아야 한다. 힘든 오늘이지만 그 하루를 견뎌낸 힘은 분명 행복을 맞이하도록 이끌고 갈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요즘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 곳이 어디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오늘의 자신을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딛자.



송마나의
## 시절인연

# 이열치열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말복이다. 삼계탕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음식점 안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부터 삼복에는 뜨거운 백숙을 먹고, 엄동설한에는 차가운 냉면을 먹는다. 차가운 것은 차가운 것으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극복하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이다.

부정의 부정으로 긍정을 이끌어내려는 것일까. 추우면 살얼음이 끼는 동치미에 국수를 말아먹고, 더우면 뜨겁고 매운 육개장을 먹어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려고 한다.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여 고(苦)를 이겨내고자 한다. 공부를 하거나, 수도를 하면서 자신을 더 부자유한 곳으로 끌어들여 진리의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묘향산에서 기거하던 서산 대사에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서산 대사가 엎드려 호랑이 흉내를 내면서 '어흥' 하고 으르렁거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은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서산 대사가 엎드려 호랑이 시늉을 한 것은 죽음을 만나면 내가 죽음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대답이었다.



그림 · 최주현

사람들은 늙거나 병들기를 싫어하며, 죽음은 더욱 회피하려고 한다. 인간에게 생로병사(生老病死)는 당연한 이치인데 피하려고만 한다.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를 피해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생로병사는 붙잡아 매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늙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늙으라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한다. 늙음은 늙음에게, 죽음은 죽음에게 맡기는 것이다.

삶이 끝나면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생(生)은 사(死)를 위하여 있고, 사는 생을 위하여 있다. 색신(色身)이 없어져야 법신(法身)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색신은 법신이 드러나도록 하고, 법신은 색신이 살아있도록 한다.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생즉사(生卽死)요 사즉생(死卽生)이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지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죽는 것이 오늘 사는 것이고, 오늘 사는 것이 오늘 죽는 것이다.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깨달음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을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날 열탕 속으로 들어가고, 추운 겨울날 얼음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다. 그 정도의 고행도 없이 자유한 자가 되겠는가. 〈작가〉

社 說

# 화합 · 안정 택한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前교육원장 진우 스님의 단독출마로 확정됐다. 후보등록 기간 중 후보 1명만이 접수함에 따라,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처음으로 선거 절차 없이 무투표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제37대 총무원장 선출과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흥미롭다. 선거공고 이후 단일후보에 의한 합의추대를 바라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추대 분위기를 조성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제37대 총무원장 선출과정에서는 그간 종단에서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각종 폐단들이 자취를 감출 것이란 사실이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금권선거 논란, 음해와 의혹제기, 분열 등 극심한 혼란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로 인해 선거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상처가 적지 않았다. 이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원로 · 중진 스님들은 물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한 합의추대를 향한 원력이 결집한 이유이기도 하다.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지도자이자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인물이기에, 선거로 인한 폐단이 반복돼선 안 되며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여법한 축제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단일후보로 출마한 진우 스님은 8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치면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며, 원로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9월 28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선거로 인한 폐단 없이 화합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제 2건학' 금강대에 거는 기대

천태종립 금강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표방했다.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전원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우수 졸업생들에게 해외 대학원 학비 지원도 이뤄졌다. 2006년에는 '학생 1인당 장학금'이 564만원으로 전국 154개 사립대학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강대는 위기에 직면했다. 학내 갈등으로 내홍은 심각했고, 외부 교육 환경 변화로 지방 대학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역량 평가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꼬리표를 달았다.

그동안 와신상담한 금강대는 올해 5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강대 재학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8월 11일에는 '제2건학'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불교학과와 행정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를 통합해 '프리마나 학부' 단일학부 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문사회적 인재를 양성을 위해 동 · 서양 고전 100권 읽기와 학생 능력에 맞는 전문 과정을 수학할 수 있게 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3튜더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금강대를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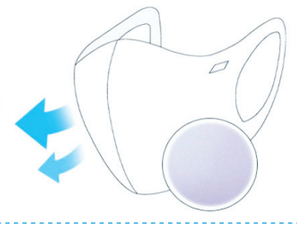
금강대의 이 같은 변화는 지방대학 위기 시대에 색다른 시도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인문학에 집중하며 학생의 재능에 맞는 전문 전공을 배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3튜더 제도'를 통해서 모든 교원 · 교직원이 학생을 집중 케어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금강대가 얼마나 변화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금강대의 변화가 '작지만 강한 대학'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항균&소취
FDA 등록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쿨~! 마스크 (연꽃문양/5색)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대량주문시 별도문의
5개 1셋트 27,500원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4개 1셋트 15,000원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4개 1셋트 22,000원
※ 3만원 미만 주문시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Antibacterial 항균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Fast Drying 빠른건조 Reusable 재사용가능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